현불 논단

사형제 존치 논란과 사회적 안전망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절대적 가치인 '생명' 두고 견해차
범죄자라도 생명박탈 반대의견과
무고한 국민의 생명권 우선 의견

범죄 원인은 개인에만 한정되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화두를 던져
개인의 책임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회 부담할 책임 외면은 부적절

앙굴리말라도 부처님의 안전망서
참회 후 수행자로 거듭나 구제돼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1996년 11월 28일, 2010년 2월 25일에 이어 다시 사형제의 존치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린 것이다.

청구인 측에서는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법적 평가를 통해 가치판단을 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고,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 이며, 범죄자를 재교육한다는 형벌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사형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반론하는 법무부 측에서는 '사형에 따른 범죄자의 생명권과 일반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 범죄행위로 인한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권 박탈 방지가 우선' 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형제의 존속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법적 쟁점 자체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오히려 재판부가 양 측에 요구한 질의 중에 '범죄의 책임이 오로지 개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라는 사항에 주목한다. 범죄자의 범죄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인가의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굳이 장발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원인이 단순히 개인에게 국한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자는 소리가 아니다. 개인 역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부담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다만 개인에게 충분히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역시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처님 시대에도 유명한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있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찾아가 교화하고 있다. 앙굴리말라는 참회하고 모범적인 수행자로 거듭나게 된다. 하지만 앙굴리말라 자신도 그리고 부처님도 앙굴리말라가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살인의 죄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인정과 참회, 그리고 '부처님의 교화' 를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이야기에서 부처님이 앙굴리말라를 찾아가는 대목에 주목한다. 깨달음을 성취하신 위대한 수행자 부처님보다는 앙굴리말라라는 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구호자이면서 안전망의 역할을 자처하는 이로서의 부처님이 더 돋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거기에는 앙굴리말라 역시 구제의 대상, 안전망의 대상으로서 고려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 그리고 그 논의를 둘러싼 가치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논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 그리고 인간존중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묻고 싶다. 그 이상적인 논쟁 안에 직접적인 실천을 담보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는 것인지.

인간 생명은 물론 뭇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불교의 교리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사형제는 부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이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범죄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자라면 사형제 존치 논란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뜻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찾아 나섰던 부처님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보아야 한다.

社 說

논란 없는 공정선거로 위상 높이길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11일로 확정됐다. 7월 26일 선거공고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체제가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선출된 후 4년 임기를 무탈하게 이끌어 온 상황인만큼, 차기 총무원장 선거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는 나온다. 그동안 조계종은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들썩여 왔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전략에 후보들의 명예에 흠집이 나거나 계파간 갈등이나 과열된 경쟁으로 세간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안 된다.

탈종단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도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이 선거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은 이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공명정대하고 네거티브 없는 선거문화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어보면 어떨까. 종단 선거법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 운영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이 어떠한 논란 없이 선출된다면 종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도 한층 더 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또 종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원력과 포부를 품은 후보들의 마음자세도 남달라야 할 것이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선출되겠다는 의지보다, 종단의 대내외적 위상과 종도들의 관심, 사회적인 여론을 두루 고려해 종단을 위해 진정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4년만에 돌아오는 총무원장 선거가 그 어느 선거보다 여법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길 발원해본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취지 알려져야

상월결사가 천막결사 이후 3년간의 국내 성지순례를 바탕으로 마침내 인도로 떠난다.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1167km를 걷는 대장정이다. 부처님의 전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를 연결한 길을 직접 한걸음 한걸음 걸을 수 있는 기회다.

상월결사는 불교중흥과 함께 국난극복과 세계평화를 외치며 매년 걷기순례를 이어왔다. 2000년 전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안락과 평화를 위해 정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도에서의 행선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루 평균 27km를 걸어야 하며 학교 공터나 흰두사원 등에서 숙영을 한다. 피치 못할 경우에는 숲에서도 잠을 잔다. 또 무더위를 피해 새벽 3시에 출발하는 등 국내에서의 순례보다 한층 더 어려운 환경이 펼쳐진다.

그럼에도 인도 성지순례를 이어가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체득하겠다는 서원 때문이다. 불제자로서 부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불교 중흥을 위해 다시 한번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108명의 순례단을 선별하는 것과 상월결사의 인도 성지순례가 불교계 안팎에 불어올 감동을 확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이들이 왜 상월결사가 인도 부처님 성지에 가고자 하는지를 알고 그 본 취지에 공감하여 한 마음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께서는 수십년 전법의 길을 걸으셨다. 하지만 혼자 걸으신 것은 아니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인연들이 함께 걸었다. 물리적으로 함께 걷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상월결사에 마음을 모아주길 기원한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⑥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삶은 곧 다양성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64의 높은 아이큐를 지닌 신입 변호사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이다.

우영우는 수많은 법조문과 판례를 외울 수 있는 높은 지능지수를 지닌 동시에 자폐증을 앓는 까닭에 유치원생도 능히 해내는 일상적인 일들조차 버거워할 만큼 낮은 감성지수도 지녔다. 우영우가 한 회에 한 개의 사건을 해결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신생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됐음에도 불구하고, 5회부터는 시청률이 10%를 기록함으로써 화제가 되었다.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법정드라마의 리얼리티가 살아 있다. 우영우가 일하는 법무법인 '한바다' 는 국내 대형로펌 중 태평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법인 이름이 유사하고, 역삼역 인근에 법인사무실이 있고, 거대한 고래 사진이 대회의실에 있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우영우라는 특별한 캐릭터가 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제3회에서 우영우는 선배 변호사인 명석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꼭 고래처럼요. 같은 고래라도 대왕고래나 긴수염고래는 혹등고래와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와 사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우의 말은 〈법화경〉의 약초유품을 떠올리게 한다. "구름에서 비가 내릴 때 비는 사방 어디에나 똑같이 땅을 적셔주지만 초목은 뿌리로 빗물을 빨아들여 크게 자라는 것은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는 것은 작게 자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법은 일미평등(一味平等)하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빗물이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 법이 세간의 중생들을 성숙시켜 주어 구경에 성불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차만별의 삶을 사는 것은 비단 자폐인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는 모양과 성질이 각기 다르다.

우리는 공정(公正)한 법조인을 원한다. 공정하다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의미이다. 실정법(實定法)은 천부인권(天賦人權)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만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 칼은 엄정한 법적 규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활인검(活人劍)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칼은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런 까닭에 엄벌주의보다는 교정주의가 성숙된 법치주의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조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저울에 든 물건의 값어치도 그 주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평함은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기에 우영우는 매회 각기 다른 스펙트럼의 사건을 해결하는지도 모르겠다.

우영우가 '이상한 변호사' 인 이유는 해당 사건의 법조문만 따지는 다른 변호사들과는 달리 사건이 아닌 사람에게 주목하고, 나아가서는 각기 다른 '사람의 향기' 를 느끼기 때문이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